

마가복음(63) 14:1-11

- 막14: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 요12:1-2,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의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 눅22:29-30,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 막14: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 요12: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 막14:4-5,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 요12:4-5,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책을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흠쳐감이라”

- 막14:6-9,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 오늘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3.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4.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에서 드러난 십자가복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5. 예수님의 십자가사랑을 맛보고 아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6.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